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차영민	소속(학부/과)	전자공학부
파견 학기	2019-2		파견 국가	헝가리
파견 대학	BME (Budapest Economics and Technology University)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주변 선배들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대학생 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것이 교환학생을 간 것, 가장 후회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환학생을 안 갔다는 것이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외를 한 번도 나가 보지 않았던 저로서는 교환학생이라는 것은 매우 뜬구름 잡는 얘기였음에도, 이러한 말들이 계속 들리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는 언어공부, 여행, 스펙 등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생활을 하며 편하고 안전한 곳에서 물 흐르듯 생활하는 것에 무언가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낯설고 불편한 곳에서 스스로 난관을 극복하고 혼자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우선 언어는 평소에도 영어로 넷플릭스나 영화를 보는 취미가 있고 영어로 말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학교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Erasmus 라는 EU 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 모든 EU권 대학생들이 한데 모여 원하는 나라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언어가 다양한 유럽이다 보니 수업과 대화를 영어로 합니다. 남은 선택지들을 조사해보았는데, BME가 굉장한 명문 대학교임을 알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수도에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살아보고 싶었다는 막연한 소망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학교라고 생각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기본 사항 - BME는 학생에게 필요한 사적인 내용, 공지사항 등을 코디네이터 보다 직접 학생에게 컨택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김소연 선생님께서 공적인 것은 완벽하게 해주시니 지원하신 이후 메일함을 반드시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 국제학생증 발급 후 kises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kises를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국제학생증을 발급 받으시면 유럽 각국 관광지에서 할인받는 곳이 꽤 있으니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 - 저는 대사관에 문의하였는데, 30,000유로 플랜 보험 가입을 말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간 다른 학교 친구들은 더 저렴한 것으로 했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비자 - 헝가리의 경우 90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기간 이후는 거주증으로 갈음합니다.

거주증은 반드시 입국하고 집을 구하자마자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처리가 상당히 늦어 2~3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90일 이후에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여행에도 거주증이 중요합니다. 무비자 체류 90일 이후, 거주증 만료 후 여행은 조금 위험합니다. 여행을 하시려면 쉥겐조약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 날짜에 맞게 안내 메일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나라처럼 막 치열하고 그런건 없습니다. 다만 며칠 후에는 꼭 차는 과목도 있으니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이 역시 메일 확인을 하루에도 자주 자주 하셔야 합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크기 - 학교 캠퍼스가 매우 큽니다. 모두 다른 번호의 트램, 지하철, 버스를 학교에서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건물이 정 반대쪽에 있다면 강의실까지 거리가 10~15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위치 - 도나우 강 한 가운데를 두고 부다 쪽에 위치 해있으며, 그 건너편인 페스트 쪽에는 그레이트 마켓 홀과 Corvinus 대학교가 위치 해있습니다. (Corvinus 대학교와 라이벌 관계라고 합니다)

기후 - 여름에 해가 굉장히 강합니다. 선글라스와 선크림이 필수입니다. 겨울은 꽤나 춥습니다 그렇게 춥지 않았던 2019~2020년 겨울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전기장판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환절기에는 갑자기 추워져 외투를 입었다가, 1주 뒤에 더워져 반팔 반바지를 입을 때가 있을 정도로 변덕스럽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수업은 영어로 합니다. 과목에 관해서는 전교환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없는 과목도 있고 한국에서는 배우던 과목이 여기서는 타과 과목이라 배울 수 없는 과목도 있습니다. 반드시 과목 목록을 잘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학부는 Electronics가 아닌 Electrical Engineering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흔히 2,3학년에 배우던 일반적인 회로 보단 통신 쪽의 과목이 좀 더 많습니다. 저는 통신전공이 아닌데도 듣게 되어 꽤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타 과는 자세히 모르지만 컴공은 손코딩을 하는 과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놀란 점은 midterm이나 final test에 fail하게 되더라도 재시험(re-test)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과목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재시험에서 또 fail을 받아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여 다시 재시험 등록을 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BME는 교환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Flat 이라고 하는 공동주거공간을 구해야 합니다. 그냥 길거리에 흔한 집에서 사람 2~5명에서 같이 거주하지만 방만 따로 쓰는 개념입니다. 화장실이나 주방은 공용으로 사용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어떤 집은 화장실이 개인 방마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랫은 집 크기가 대부분 크편이고 마찬가지로 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플랫을 구하는 법은 대부분 출국 전에 페이스북 Budapest flats and apartments for sale 이나 Flats for erasmus in budapest 라고 하는 페이지들에서 컨택 및 약속을 하고 가는데요, 보통 첫 번째 집을 보자마자 계약하는 경우는 잘 없겠죠? 호스텔이나 에어비엔비에서 며칠 지내시면서 신중히 고르시길 바랍니다.

위치는 Astoria, Kalvin, Blaha, Rákóczi 역 쪽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역들을 가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역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니 너무 한정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Blaha는 맥도날드 바로 뒤쪽 편은 치안이나 사람들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 (바로 뒤쪽편을 쪽 지나면 괜찮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역시 학교까지의 교통 때문인데요, 4번, 6번 트램 라인 근처가 가장 좋습니다. 24

시간 운행하며 운행 대수도 많아 자주자주 옵니다. 공학 전공수업이 많이 있는 I, Q building은 4,6번 트램을 타고 걸어가는 것 밖에 답이 없습니다.

참 혹여나 학교가 가깝다고 부다쪽에 사는 것은 많이 비추천합니다..

가격은 보통 월세 300~400유로, deposit은 2달치, 즉 를 내는 것이 평균인 것 같습니다.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어 있는 플랫을 구하는게 편합니다. 6개월 입주가 minimum인 플랫이 많은데 아주 일찍 출국하고 늦게 귀국하지 않는 이상 보통 4~5개월을 살게되니 잘 확인하세요.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BME는 교환학생만 해도 상당수인 거대한 학교입니다. Erasmus BME, ELB(Erasmus Life Budapest) 와 같이 학생들의 커뮤니티? 그룹?이 있습니다. 보통은 Erasmus BME 내에서 멘토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거나 휴학하고 직장을 다니는 멘토들이 여기 속해있으며 교환학생들을 도와줍니다. Freshman Camp, Movie night, International Dinner Party, 매주 Pub evening (Pub crawl), Welcome party 등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잘 짜서 도와줍니다. 모두 자발적이니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SN 카드를 만들면 많은 프로그램들의 입장료를 할인 해줍니다.

ELB는 BME 뿐만 아니라 부다페스트 내의 모든 학교 교환학생들 끼리의 프로그램을 담당합니다. Welcome party, Halloween party, Cruise party 등 꽤 스케일이 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다른 학교에 온 한국 학생들이나 외국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Sports Centre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배우느라 짧게나마 등록을 했었는데 테니스, 농구, 배구 등 모든 시설이 있으며 헬스 기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헬스 등록비용도 저렴했습니다. 교환학생들 끼리 농구도 자주 하는걸 보았는데, 아마 BME 학생들의 동아리가 있는지나 들어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 길거리 흡연이 심합니다. 대부분 유럽국가가 그렇듯 길거리 흡연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야외 테라스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외는 곧 흡연석을 의미하니 이를 따지거나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 행정 처리나 일 처리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선 조금만 늦거나 잘못되도 큰 일이 되지만, 여기서는 정확한 일 처리, 신속한 일 처리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인종차별에 관해서는, 대부분 유럽 국가를 가본 후 경험으로는 다른 나라나 도시들에 비해 부다페스트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사건으로 별 것 아닌 일도 인종차별을 대입하면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각 국 여행지에서 본 한국 사람들이 유독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서 말한 일 처리등에서 이를 대입하게 되면 상당히 열받게 되니 그런 생각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빙 실수, 잔돈 빼먹기 등) 물론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면전에서 대놓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본인의 안전이 우선이므로, 언쟁하지 말고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신 것처럼 참교육을 해주실 수 있어도 본인의 신변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 부다페스트 치안은 생각보다 매우 안전합니다. 소매치기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거의 없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한 번도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유럽 나라들과 달리 밤 늦게 돌아다녀도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항상 주의는 필요합니다.

- 겨울 시즌에는 오후 4시쯤이면 해가 집니다. 낮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우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펌이나 클럽등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학교 등록 후 빠르게 임시 학생증 E100 form을 Neptun에서 신청하셔서 (아마 Whatsapp에서 다른 학생들이 말 할겁니다.) 학생용 1달 교통권을 구매하세요. (매우 저렴합니다. 3450 HUF = 약 ₩13,000)
- 어부의 요새, 국회의사당 보면서 맥주나 와인을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엄청 많이 보게 되실거예요.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다행히도 교환학생 지원 계기에서 목표하고자 했던 바를 배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아닌 곳에서 혼자 헤쳐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나라에서 반 년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대학교를 다니며,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험은 대학교를 다니는 이 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하면서도 배운 것이 많습니다. 공강 때, 종강 이후 혼자 간 여행에서 호스텔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놀며 같이 여행지를 다니는 제 모습을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수적인 것들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만 제일 큰 것은 역시 낯선 곳에서 저 자신을 볼 수 있는 경험을 얻은 것 이었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